大갈등 시대, 종교가 필요하다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1979년 12월 3일 러시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소련은 3만 명의 군대를 파견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 전쟁의 목적은 한 해 전 좌익장교들이 정부를 전복하고 인민민주당을 설립해 정권을 장악했으나 이슬람 폭동과 반란이 발생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함이었다. 10여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10여 년간 이어졌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989년 소련군이 완전히 철수하면서 휴전에 들어갔지만 내전으로 비화되면서 1992년 반군세력이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끝났다.

이 전쟁으로 소련은 경제가 뒷걸음치고, 생산과 분배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물가 급등과 물자 부족 등 경제위기가 심화됐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등의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했으나 버티지 못하고 1991년 소련연방은 해체되었으며 러시아가 탄생했다. 이러한 변화의 여파는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독립하여 민주화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등 동구 유럽국가 다수가 나토와 유럽경제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세계적인 변화를 촉진했다.

2000년 제3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선출된 푸틴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키워 2014년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침공해 병합했다. 동부 돈바스 지역 등에서 지속적인 국지전을 일으키면서 영토를 확장하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기습 특수 군

러시아發 갈등 곳곳으로 확전
미국 관세 정책에 무역전 돌입
대승불교 바탕한 변화 모색을

사작전을 시작했고,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우-러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와 이란을 통해 중동지역에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그리고 53년간 집권한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 등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벌들이 속속 제거되면서 이란의 영향력은 급속이 위축되었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해 6월 이란을 공습하여 핵시설을 폭파하고 관계자들을 제거하면서 이란을 지원하던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축소되고 있다.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를 내밀하게 지원하던 시진핑 정권의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무역전쟁에 돌입하면서 심각한 내상을 입었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몰렸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을 축으로 하는 세력과 미국, 이스라엘, 유럽 등의 서구 세력과의 무역 갈등, 군사적 충돌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심각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전쟁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종교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 정교회, 이스라엘의 유대교, 중동의 이슬람교 시아파와 수니파, 미국의 개신교, 유럽의 가톨릭, 그리고 아시아의 불교 등 많은 종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종교는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역기능만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불교는 대승보살행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이념과 종교, 국경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길과 방법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 이 시기에 부처님께서 나투시면 어떤 길을 일러 주실지 심사숙고하는 대승보살이 많아지길 바란다.

미래세대 위해 지역 문화주권 회복해야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실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국민주권 정부는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문화강국으로 만들고 2030년까지 문화시장 300조원과 수출 50조원을 이루겠다고 했다. 최근 불어오는 한국 문화 열풍이 배경이다.

새 정부는 '5대 K-컬처'로 K푸드·뷰티·팝·드라마·웹툰을 꼽았다. 하지만 K-컬처의 근본에는 문화유산이 있다. 문화유산은 한류의 배경이고 창작의 원천이다. 백제 무령왕릉을 잘 지켜 국보가 된 돌짐승(석수) 이야기, LG그룹의 심볼이 된 신라 얼굴무늬 수막새 등 선조들의 상상과 창작의 세계가 오늘날에 맞닿아 있고, DNA는 계승·전파돼 지금의 한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자주 현장을 찾는다. 단순히 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 시장을 방문하던 전임자의 모습과는 상반된다. 이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의 국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을 들러보기를 권한다. 점심식사 후 잠시의 여유만 있으면 될 듯하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앞으로 20년 후면 광복 100주년이다. 우리는 아직도 일제 40년이 남긴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두 배의 세월을

國博 유물 대다수 적산 계승
일제 청산 위해 지역 환수를
수도권-지역 격차 해소 도움

보냈다. 과거 불행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몫이 된 지 오래이다. 국립박물관의 소장품 상당수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것이다. 적산으로 물려받아 오늘날까지 대물림하고 있다. 그중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유산이 당연하게도 상당수이다. 이를 지역으로 돌려 달라는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공허한 메아리이다.

우리 안의 약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윤리적인 국립박물관이 되어야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K-헤리티지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박물관은 과거 약탈 등 불법적 수단으로 취득한 소장품을 앞다퉈 원래 자리로 돌려주고 있다. 이를 국가 사이의 이슈로 치부하고 우리 안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미래세대에 더욱 가치 있게 전해 주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전국 모든 미래세대가 고르게 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서울 용산의 국립박물관에는 약 45만 점의 유물이 있지만 한 번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역 청소년이 많다는 사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출발은 지역에 유산을 돌려주는 일이다. 이를 지체할 이유는 없다. 청소년이 누릴 권리가 훼손되고 있는데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몹쓸 짓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배경에는 지역 활성화가 있다. 지역 대표 브랜드는 공동체의 오랜 정체성에서 연유한다.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역의 문화주권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뿌리 없는 문화는 잠시 유행할 뿐이다.

社 說

광복 80주년, 불교가 남북 교류 마중물 돼야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다. 광복은 우리 민족에게 더없는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곧 분단의 시작이기도 했다. 1948년 남북한에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정치·제도적 분단이 이뤄진 후, 우리는 지금까지도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현실에서 평화와 번영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불교교류와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다. 특히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은 불교계를 넘어 남북 교류 역사에서도 상징적인 해였다.

그해 5월, 조계종은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를 봉행하고, 그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5 불교통일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공존과 상생, 합심의 논리로 통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실천 지침이 담겼다. 조계종은 "한국불교가 통일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함"이며 "남과 북의 진정한 통일은 '땅의 통일'과 함께 '마음의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또 "불교도는 굳어진 남북관계를 풀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9월에는 남북 불교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에서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당시 남북한 상황은 급박했다. 8월 초 DMZ 목함지뢰 폭발 사건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이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이어졌다. 다행히 8.25 남북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정세가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언제 급변할지 모르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은 불교계였다. 경색된 국면에서 치러진 남북불교도 합동법회는 8.25남북공동선언 후 치러진 첫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 행사로, 이후 이산가족상봉 등 민간 교류 재개의 신호탄이 됐다.

10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했다.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고 인도적 교류도 끊겼다. 남북 불교교류 역시 2018년 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나마 올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다만 오랜 정치적 갈등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기에 종교계, 그중에서도 남북 교류에 힘써온 불교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라는 '방법적 해법'뿐 아니라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자비사상이라는 '정신적 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6월 16일 대북 종책특별보좌관에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고 "새 정부가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불교계가 다시 앞장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문화 교류가 단초가 돼 정치적 갈등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남북 민간 교류의 문을 다시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단 80년을 넘어설 수 있는 자비 실천이 절실한 때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7월 3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